

방탄소년단, 국내 가요 시상식서 '대상' 릴레이



세계적인 보이그룹으로 떠오르며 누구보다 바쁜 한 해를 보낸 방탄소년단(BTS)이 연말을 맞아 그 결실을 보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국내 연말 가요 시상식에서의 수상 릴레이다.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6일 열린 '2018 MBC플러스 x 지니 뮤직 어워드(2018 MGA)'에서 대상 격인 올해의 가수상과 올해의 디지털 앨범상을 포함해 총 9개의 트로피를 쓸어

당했다.

지난 1일 열린 '2018 멜론뮤저워드'에서도 대상 격인 올해의 아티스트상과 올해의 앨범을 받았고, 톱 10, 네티즌 인기상, 카카오프스타상, 글로벌아티스트상, 랩/힙합 상 등 총 7개의 트로피를 품에 안으며 절정의 인기를 과시했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시혁 대표 등 방탄소년단 앨범 작업에 참여한 프로듀서, 안무가 등이 각종

시상식에서 전문 분야 트로피를 휩쓸고 있다는 점도 이목을 끈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5월과 8월 각각 정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와 리패키지 앨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LOVE YOURSELF 結 Answer)를 발매해 음원과 음반 분야 모두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특히 음반 파워가 강력했다. 이들은 올해 발매한 두 장의 앨범으로

해외 매체 선정 올해의 인물·노래 명단 포함

400만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올렸다. 가온차트 11월 월간차트에 따르면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와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의 누적 판매량은 각각 183만5012장과 216만9619장을 기록했다.

타 가수들을 압도하는 성적을 거둔 방탄소년단은 '2018 얼넷 아시아 뮤직어워드(2018 MAMA)' 등 올해 남아있는 또 다른 가요 시상식에서도 각종 트로피를 휩쓸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12일과 14일 각각 일본 일본 사이타마 아레나와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 아레나에서 열리는 '2018 MAMA'에 참여해 수상을 노린다.

올해 미국 빌보드 앨범차트에서 두 차례 1위에 오르고 월드 투어를 펼쳐 전 세계 팬들과 만난 방탄소년단은 연말을 맞아 해외 유력 매체들로부터 올해를 빛낸 인물 등으로 꼽히며 날다른 영향력을 과시 중이기도 하다.

방탄소년단은 빌보드의 올해 결산 차트에서 '톱 아티스트 부문 8위'를 차지했으며,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뽑은 '블룸버그 50' 명단에 한

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블룸버그는 방탄소년단을 "미국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성공을 거둔 K팝 밴드"라고 소개하며 "방탄소년단의 엄청난 인기는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장르에도 불구하고 사회 문제, 정신 건강 및 정치에 관해 기꺼이 이야기해 왔던 것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올해 최고의 노래' 65곡을 선정하며 방탄소년단의 정규 3집 타이틀곡 '페이크 러브'(FAKE LOVE)와 멤버 뷁의 솔로곡 '싱귤러리티'(Singularity)를 공동 20위로 뽑았다.

아울러 트위터는 방탄소년단의 공식 트위터 계정이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트윗된 계정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의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 앨범 디자인에 참여한 허스키 폭스사가 내년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그라미 어워드'의 '베스트 레코딩 패키지(Best Recording Package)' 부문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비록 방탄소년단의 '그라미 어워드' 입성은 불발됐지만, 한국 가요의 앨범 작업에 참여한 스태프가 그라미상 후보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빌보드는 이번 후보 지명에 대해 "(앨범) 콘셉트에 대한 방탄소년단의 헌신을 기리는 것이자 새로운 돌파구와 이정표를 만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이 올해 발표한 앨범은 미국에서 여전히 인기다.

11일(현지시간)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는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84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이 앨범은 지난 9월 빌보드 200에 1위로 첫 진입한 이후 15주째 차트에 머물렀다. 이는 앞서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가 빌보드 200에 연속 진입한 기록과 동률이다.

이들이 2015년 4월 공개한 '쩨어'의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한국 시간으로 12일 오전 3시 57분쯤 유튜브에서 조회수 4억 건을 넘어섰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5억뷰를 넘은 'DNA'를 비롯해 '불타오르네'와 '쩨어'까지 총 3편의 4억뷰 돌파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게 됐다.

'아쿠아맨', DC 구원투수 될 수 있을까

DC코믹스는 마블 코믹스와 함께 미국 만화계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국내에서는 헐크나 토르 같은 마블 캐릭터보다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같은 DC 캐릭터가 더 친숙했다.

그러나 2008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첫 작품인 '아이언맨'이 개봉하면서 상황은 정반대로 뒤집혔다. 우리나라에서는 마블 팬만 있던 '아이언맨'이 최고 인기 캐릭터로 떠올랐고, 마블 캐릭터들은 10년간 세계 영화계를 지배했다.

DC도 마블에 대항해 자체 캐릭터와 세계관을 활용한 'DC 확장 유니버스' 시리즈를 선보인다. 그러나 마블에 비교하면 초라한 흥행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슈퍼맨 영화 '벤 오브 스틸'은 국

내 관객 218만명을 동원하는 데 그쳤고,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은 225만명, '수어사이드 스쿼드' 189만명, '월더우먼' 218만명, '저스티스 리그' 178만명 등 전작들이 200만 내외를 동원하는 데 그쳤다.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DC가 절치부심 끝에 여섯 번째 확장 유니버스 작품인 '아쿠아맨'을 선보인다. 바다의 제왕이 벼랑 끝에 몰린 DC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세계 영화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쿠아맨은 전작 '배트맨 대 슈퍼맨'과 '저스티스 리그'에서 이미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마블의 '어벤저스' 같은 '팀 영화'에 먼저 출연한 후 이를 바탕으로 솔로 영화가



제작된 것이다. '저스티스 리그' 연출을 맡은 잭 스나이더는 제작 총괄로 한발 물러

섰으며, '컨저링 시리즈', '쑈우',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을 연출한 제임스 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슈퍼히어로 영화를 맡은 것은 처음이지만 제임스 완은 '블랙의 흥행 감독'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수중 액션 블록버스터를 멋들여지게 완성했다. 2시간 23분이라는 러닝타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다.

영화는 등대지기 아버지와 해저 왕국 아틀란티스의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이서(제이슨 모모아 분)'가 바다의 왕이자 심해의 수호자인 슈퍼히어로 '아쿠아맨'으로 성장

하는 과정을 그린다.

아서는 육지를 정복하려는 동생 '올'을 막기 위해 아틀란티스의 왕위에 오르려 한다. 그러나 아서의 힘만으로 올을 상대하기에 역부족이다.

이에 아서는 제벨 왕국의 공주인 '메라(엠버 허드 분)'와 함께 바다를 다스리는 힘이 숨겨져 있다는 진실의 실마리를 찾아 나선다.

제임스 완은 아틀란티스의 진실과 '아쿠아맨' 코믹스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세계를 선보인다. 고대 그리스 문명과 초현대적인 과학 문명이 뒤섞인 듯한 아틀란티스의 화려한 모습과 거대한 해양생물, 수만 마리에 이를 듯한 해양 몬스터 무리는 관객의 시선을 압도한다.

영화의 3분의 2가 수중 장면인 만큼 대형 볼륨크를 이용해 수중 촬영에 나섰고 물속에서 위로 솟구친 머리카메라와 물방울 등은 CG로 표현

했다.

수중 액션 역시 제임스 완 감독이 고심을 거듭한 부분이다. 아틀란티스 은 물속에서 호흡할 수 있는 데 마치 배우가 물속에서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제임스 완은 배우들이 자연스럽게 해엄치고 물속을 가르는 것처럼 보이도록 시소나 카메라 받침대 등의 보조도구를 사용했고, 와이어 액션과 CG를 이용해 독창적인 수중 액션 장면을 창조해냈다.

제임스 완은 "이 영화를 통해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는 영화를 찍고 싶다는 소원을 성취했다"며 "다양한 종족, 캐릭터, 의상, 생명체 등 모든 것을 만들었다. 내 꿈이 이뤄진 기분"이라고 말했다.

제이슨 모모아와 엠버 허드는 수중 액션을 위해 5개월 동안 일주일에 6일씩 스팀트 훈련을 비롯해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 제이슨 모모아는 직접 설치한 벽을 타며 훈련했고, 엠버 허드는 5~6개월가량 다이아트를 했다"고 한다.

제이슨 모모아는 "굉장히 표현하기 어려운 캐릭터를 멋지게 표현해냈다"며 "굉장히 어려운 촬영이었고, 세상에서 제일 힘든 작업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엠버 허드는 "촬영하는 날마다 젖어있었다. 물을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완전히 젖은 상태로 촬영해야 했다"며 "촬영을 마치면 손이 주글주글해질 정도였다"고 말했다.

엔딩 크레딧에 쿨키 영상 한 편이 삽입됐다. 영화 속 주요 캐릭터가 등장해 후속편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19일 개봉하며 12세 이상 관람할 수 있다.

MBC 2018 연예대상 후보, 전현무·김구라·박나래·이영자



MBC가 2018 방송연예대상 후보 4인을 발표했다.

첫 번째 후보는 MBC 예능 지난 해 대상 수상자 전현무다. 이번 연예대상 MC를 맡은 것은 물론 한 해 동안 MBC를 대표하는 간판 예능 '나 혼자 산다'의 '전지적 참견 시점' 메인 MC를 맡았고 '무한도전' 후속 프로그램이었던 '북극의 Q' 진행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보여줬다.

두 번째 대상 후보는 김구라다. 김구라는 MBC '리디오스타'와 함

께 '북편가랑', '선을 넘는 녀석들', '토크 노마드' 등 MBC의 성실 일꾼으로서의 활약을 했다.

이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대상 후보자 두 명은 박나래와 이영자로 17년 만에 여성 예능인 대상설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먼저 최고 시청률 18%를 돌파하며 금요일 밤을 책임지고 있는 '나 혼자 산다'의 박나래는 고정 출연자뿐만 아니라 무지개 라이브에 출연하는 게스트 모두와 날다른 호흡을 보여줬다. 박나래는 '나 혼자 산다'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며 나올 때마다 화제성 1위를 달성하며 올 한 해 시청자들에게 즐겨

움을 선사해 수상이 유력한 대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마지막 대상 후보인 이영자는 올해 시작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 이제는 MBC 대표 예능 프로그램이 된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박교수 막장군, 영자미식회' 등 수많은 수석어를 만들어 내며 먹는 음식들 마다 매진 신화를 이뤘었다. 이영자 없는 '전지적 참견 시점'은 상상도 할 수 없게 만들면서 대상 수상자로 손색없는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오는 29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될 2018 MBC 방송연예대상은 전현무, 헤리, 승리가 진행을 맡았다.

오늘의 운세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음력 11월 7일)



▶**띠** 운이 막혔다고 한탄하지 말고 아내 말도 때로는 듣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인생은 빨리 갈 때도 있고, 나무부리나 바위에 부딪쳐 굽이쳐야 할 때도 있으니 자신의 무력함을 비판하지 말라.



▶**띠** 소, 용, 양피와 뜻을 합하니 만사 형통할 운이다. 멀리 있다고 여긴 친구가 힘이 돼주고 용기도 주는구나. 2, 7, 11월생은 베풀 만큼 되돌아오니 신용과 신뢰를 소중히 여길 것. 지금은 매매 건과 투자는 금물. 붉은색이 길.



▶**띠** 생활의 리듬이 깨지면 전체가 흔들리는 법. 생각은 정대하고 행함은 작으니 신중을 기하라. 타인의 좋고는 자기 발전과 자아 성찰의 계기가 되는 법. 3, 5, 12월생은 서, 북쪽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할 때.



▶**띠** 감정이 앞서면 일을 그르치는 법.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용, 담, 돼지띠를 지배할 수 있다. 자기 반성과 채찍질이 발전의 근원임을 알 것. 심신 안정과 건강 관리에 힘써야 할 때. 7, 8, 12월생은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짐이 어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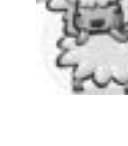
▶**띠** 바, 사, 오, 토 성씨는 매사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자포자기 상태구나. 노력 없이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지혜와 뜻을 모으고 시야를 넓혀 활동함이 좋을 듯. 1, 4, 8, 9월생 상대방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라. 애정에 굽이 간다.



▶**띠** 우물 안 개구리 격. 마음이 두 곳에 있으니 하나도 제대로 못할까 염려된다. 도전과 용기, 모험심이 필요하다. 쥐, 토끼, 닭띠 도움을 받으면 수월하겠나. 3, 5월생은 4, 9, 12월생과 동업하면 길할 듯.



▶**띠** 임기응변이 뛰어나고 논리적인 나다. 좀더 계획적이면 금상첨화다. 지나친 눈치 작전은 자칫 달성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실수를 인정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신뢰를 받는다. 7, 8, 12월생 투자와 동업은 금물.



▶**띠** 감정 과잉은 건강에 해롭지만, 적당히 긴장하고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 고비 풀린 소는 너무 자유로운 나머지 자기가 진짜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지 못하는 법. 쥐, 말, 돼지띠 도움을 받으면 미래 지향적이다. 남쪽에 가지 말 것.



▶**띠** 자식이 품 안에서 떠났다면 놓아두라. 지나친 보호 본능이 자칫 화를 부를 수 있음을 명심하라. 무리한 욕심은 근심 걱정을 만든다. 주어진 환경을 재검토하고, 철저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때.



▶**띠** 현실을 직시하라. 과거에 대한 집착은 퇴행을 자초할 뿐이다. 빛갈 없는 삶은 덧없이 흘러가 버리는 법. 미혼자는 친구가 애인이 된다. 7, 8, 12월생은 동,북쪽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 늦은 밤길은 고민을 얻을 수.



▶**띠** 시작은 미비했으나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 탓에 끈없이 노력해 목적 달성에 도달한다. '빨리빨리'를 외치다가 힘겨운 일이 생길까. 느긋한 자세로 재검토함이 좋을 듯. 3, 7, 8, 12월생은 과거의 나를 잊고 자존심을 버리라.



▶**띠** 바, 오, 토 성씨는 무조건 사랑한다는 달콤한 사랑 발림 한 마디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신중을 기해 상대 내면을 보라.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때. 현재 입증 변경은 무리. 동쪽이 길.